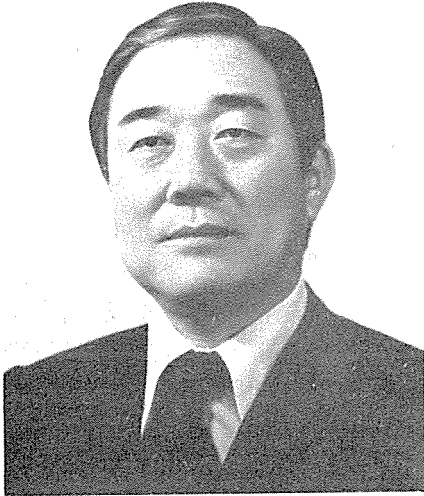


보사부장관에 李海元씨 취임



李海元보사부장관

全斗煥대통령은 지난 2월18일 제21대 보건사회부장관으로 제11대 국회 문공위원장인 李海元씨를 임명, 발령했다.

신임 李海元보사부장관은 충북 제천출신으로 서울大 法大를 나와 미국 미네소타 대학원을 수료한후 서울대와 성균관대학에서 교수직을 역임한뒤 8대국회부터 국회에 진출, 議政단상에서 활약해 왔다.

또한 李海元장관은 4선 의원에다 민주공화당 대변인, 원내총무 국회문공위원장등 요직을 두루 거친 보기드문 관록의 중량급 정치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저서로는 「行政學 概論」이 있다.

앞으로 해박한 그의 지식과 관록으로 보사행정을 이끌어 나갈것으로 보여져 기대하

지난 2월18일 제21대 장관으로

는바가 자못 큰바 있다.

李장관은 취임소감에서 「보사부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기능을 강구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충북 제천 출신 (55세)
- 서울대 법대, 동대학원 졸업
- 美国 미네소타 대학원 수료
- 서울법대 동행정대학원 강사
- 성균관대 법정대 교수 同국제문화연구원장
- 제8.9.10.11대 국회의원.
- 민주공화당 대변인
- 제11대 국회 문공위원장

沈享洙국장·韓庚容소장 研修 일본 가나가와懸 예방의학 사업회에서

건협 대구시지부 沈享洙사무국장과 서울시지부 검사소 韓庚容소장이 일본의 건강관리사업현황 시찰과 연수를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13일까지 가나가와懸에 소재한 가나가와懸 예방의학사업 중앙회를 방문했다.

이들은 일본의 건강관리사업현황을 연구함으로써 한국건강관리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徐基弘부장

徐基弘 관리부장에 표창장

직장정화추진 공로 인정받아

寄協 본부 서기홍관리부장(사진)은 지난 84년 12월 26일 사회정화추진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본협회 직장정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협회 정화추진의 활성화방안 과 매월 1일 개최되는 정화추진위원회를 다각적으로 추진해서 기협의 정화추진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큰바 있다.

寄協健協이사회개최

2월 8일, 13일 양일간

寄協 및 健協은 지난 2월 8일, 2월 13일 오전 11시 양일간에 걸쳐 서울 을지로 소재 스칸디나비아클럽에서 85년도 제 1차 정기이사회를 갖고 1985년도 일반회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결과 보고, 사업현황, 예산집행현황 보고를 듣고 통과시켰다.

부의안건에 들어가 1984년도 일반회계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의견, 보조금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의견, 1985년도 보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의견, 청사확보를 위한 적립금 규정 중 일부 개정의견, 불용물품 결정 및 매각처분 승인의견, 기생충학회 보조금 지급 승인의견, 임직원 보수규정 중 일부 개정의 건등을 각각 통과시켰다.

간흡총사업 홍보물 13시도지부 배부

포스타 팜프렛 표어 등

寄協은 간흡총사업 홍보의 일환으로 포스타 2천매, 팜프렛 2십2만매, 표어 2천매등을 제작하여 전국의 반상회, 부녀회등을 통해 계몽 토록 했다. 13개시도지부에 배정한 홍보유인물은 전국의 간흡총검사사업 대상 지역을 배포 里洞단위까지 대상으로 삼고 있다.

「건강관리시리즈」 책자 발간

건강관리협회에서는 비전염성 만성질환을 조속히 퇴치하고 국민계몽을 위한 자료로서 제7장을 지난 2월 13일자로 발간하였다.

이미 제6집 「빈혈이야기」까지 제작한 健協은 제8장으로는 「비만증이야기」를 시리즈로 발간할 예정으로 있다.



사진 : 안상옥
상무이사의
정신교육광경

간흡충 검사치료사업 활성화 교육

시도지부 사업과장 검사소장 대상으로

한국기생충박멸협회는 지난 3월6일~3월7일까지 1박2일동안 본부 강당에서 85년 간흡충치료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본부를 비롯한 전국 13개시도 지부에서 참석한 32명의 과·소장급 교육을 실시했다.

간흡충의 전문교육및 대외 홍보 사업추진, 대인접촉관계등 다채롭게 실시 되었는데 보사부 朴正求만성병과장등 외부강사및 내부 강사의 진지한 강의가 있었다.

과장급 연수교육

2월14일 - 16일

지난 2월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 85년 상반기 과장급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충청북도 증원군 상모면 온천리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은 과·소장급 25명이 참석했다.

徐丙高회장은 이날교육식상에서 「협회에서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생들은 모든 업무에 만전을 기하면서 상호간의 유대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식사를 했다.

이날 연수교육은 안상옥 상무이사의 “인화단결의 정신교육”에이어 방옥균 보사부만성병과 사무관의 85년도 기생충대책에 대한 정책지시와 84년도 사업실적 분석및 85년도

사업추진 대책발표 85년도 사정업무 추진및 각종보고서 작성요령, 문서관리및 보관, 85년도 기생충 관리시책예산업무, 감사업무등 다채롭게 이루어졌다.

일반적 연수교육

2월26~28일

지난 2월26일부터 28일까지 85년도 상반기 일반적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도강리에서 실시된 이번교육에는 일반적60여명이 참석했다.

徐丙高 회장은 개강식 석장에서 「우리 기협, 건협은 무수한 역경을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직원여러분은 맡은바 임무에 더 충실하여 국민보건향상에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요지의 식사를 마쳤다.

“「寄協二十年史」발간에 감회깊어”

国井長次郎씨 등이 감사편지 보내와



〈国井長次郎 씨〉



〈国井涉 씨〉



〈稻見一清 씨〉

〈사진 좌로부터 : 国井長次郎씨, 国井涉씨, 稻見一清씨〉

일본예방의학중앙회 전문이사겸 일본기생충 예방회 전문이사인 国井長次郎씨등은서 병설회장 및 안상욱 상무이사에게 작년에 발간한 「寄協二十年史」 발간을 축하한다는 격려 서한과 함께 앞으로 韓日양국의 뉴대를 더욱 돈독히 하자고 강조하면서 특히 健協과 일본 예방의학중앙회, 기협과 일본기생충예방회의 끊을 수 없는 뉴대를 더욱 강조했다.

다음에 수록한 내용은 国井長次郎씨의서한 내용과 国井涉(일본기생충예방회 사무국장)씨의 서한문, 東系예방의학협회 稻見一清 상무이사의 서한문을 실어 소개하는 것이다.

徐丙高 先生

금번 「寄協二十年史」(韓國寄生虫撲滅協

会刊)을 뜻있게 보내주심에 대단히 감사말씀 올립니다.

貴重한 歴史가 이와같이 훌륭한 책이 된 것에 대해 마음으로 기쁨을 드립니다.이 귀중한 歴史속에 나의 文章등을 掲載하여 주셔서 小生으로서 이러한 名譽로운 일은 없군요.

책장을 넘기면서 二十年前의 일들을 새삼스레 돌이켜 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寄生虫減少와 더불어 健康管理協會로 새롭게 출발하게된 신중한 선택과 이의 발전에는 깊은 敬意를 표하고 싶습니다.이協會는 가까운 將來에 한국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커다란 活動을 하게 되겠지요.

우리나라(日本)에 있어서도 재작년 老人保健法の 成立과 더불어 日本寄生虫予防

회를 모체로해서 성장한 予防医学事業中央회는 전지부가 일치하여 활약, 해를 거듭할수록 大發展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또 가족계획+기생충예방Intergration의 덕분으로 금년부터는 아프리카 諸國에 까지 신장할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발전에 관해서도 나는 한국과 대만의 선생님들에게 늦은감이 있으나 심심한 感謝를 표하고 싶습니다.

韓國寄生虫撲滅協會와 日本寄生虫予防會는 앞으로도 世界사람들의 건강향상을 위해 協同合作할 것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기생충이 적어지는 날이오면 韓國의 健康管理協會와 日本의 予防医学協會는 더욱더 힘을 합하여 세계에 공헌하게 될것입니다.

「寄協二十年史」刊行 축하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1985年 1月
國井 長次郎

安商玉 先生 貴下

謹啓

「寄協20年史」를 보내주시어 대단히 고마운 말씀 올립니다.

歴史에 쌓였던 숨은 역사로 생각됩니다. 참으로 새삼 協會의 20年の 자취에 대해敬意를 表합니다.

韓·日 서로 이마지하여 앞날의 予防医学活動에 衆人보다 앞서 나가야 할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李干馥先生이 무엇인가의 形態로 오늘의 協會의 一員으로서 남지 못하게 된 것이 그

저 하나의 유감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徐會長을 위시해 職員 여러분에게도 잘 말씀 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敬具

1985年 1月 25日

國井 涉

常務理事 安 商玉 귀하

拜啓

이른봄에 즈음하여 더욱더 새로운 번영을 바라며 慶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貴協會 創立 20周年記念誌(史)를 보내주시어 감사합니다. 돌이켜보건데 한국의 20年은 우리나라(日本)에서 눈여겨 볼때 나라의 발전에 따른 국민의 公衆衛生向上과 특히 寄生虫 撲滅에 注力한 것이 貴協會의 發展과 오늘의 大寄生虫撲滅協會를 만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훌륭한 記念誌를 펴낸 일은 20年 歴史를 빛내는 事業으로 새삼스레 敬意를 表합니다.

처음으로 1970年에 貴協會를 訪問해서 만나뵈는 것이 엇그제 처럼 생각됩니다. 記念書籍으로 保管해서 우리들의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붓을 놓으면서 徐會長님을 위시해서 여러분에게 안부전해 주십시오.

貴下의 健康을 바랍니다.

1985年 2月 15日

(財) 東京都 予防医学協會
常務理事 稻見一清